

2018년 7월 3일

#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나스닥, 실적 개선 기대에 힘입어 상승 전환 트럼프, “WTO 탈퇴 생각 없다” 주장도 주가지수에 우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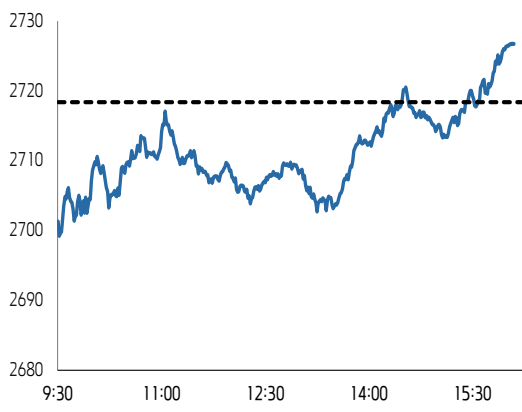
### 미국, WTO 탈퇴 우려 부각

유럽증시는 무역분쟁 여파로 하락. 글렌코어(-3.51%), 리오티노(-3.23%) 등 원자재주가 하락 주도. 한편, 다임러(+0.82%), BMW(+0.13%) 등은 상승. 미 증시는 무역분쟁 여파와 미국의 WTO 탈퇴 가능성이 제기되자 하락 출발. 그러나 지표가 개선되고, 어닝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며 하락폭 축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WTO 탈퇴 생각 없다는 발언과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당선자에게 양자간 무역협상 가능성을 언급하자 상승전환에 성공(다우 +0.11%, 나스닥 +0.76%, S&P500 +0.31%, 러셀 2000 +0.73%)

지난 주말 미국의 일부 언론은 백악관이 의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초안을 보도. 이에 따르면 WTO 기본 원칙인 최혜국 대우 원칙과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조치 완화 등을 무시하고 개별 국가와 협상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 시장에서는 WTO 탈퇴와 동등한 조치로 해석. 지난 5 월 하순에 관련된 법안의 초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을 받았고, 피터 나바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료들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 한편, 미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지난 6 월 6 일 대통령의 무분별한 관세 부과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 지난 23 일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 또한 무역확장법 232 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의회와 행정부간의 마찰이 6 월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에 “WTO 탈퇴 생각 없다” 라며 한발 물러섬.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보안과 북미 자유 무역 협정에 관해 멕시코 대통령 당선자 인 오브라도르와 협상할 용의가 있다” 라고 발표한 점도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영향. 반면, 미국의 유럽산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해 EU 가 미국 제품에 대해 대규모 보복 관세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중국 또한 대 미국 보복관세 언급 등 무역분쟁 우려는 지속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71.54	-2.35	홍콩恒生	28,955.11	휴장
KOSDAQ	789.82	-3.47	영국	7,547.85	-1.17
DOW	24,307.18	+0.15	독일	12,238.17	-0.55
NASDAQ	7,567.69	+0.76	프랑스	5,276.76	-0.88
S&P 500	2,726.71	+0.31	스페인	9,558.30	-0.67
상하이종합	2,775.56	-2.52	그리스	748.21	-1.24
일본	21,811.93	-2.21	이탈리아	21,427.20	-0.9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대형 기술주 상승 주도

마이크론(+3.89%)은 최근 양호한 실적 발표 했으나, 무역분쟁 여파로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했다. 알파벳(+1.14%), 페이스북(+1.56%), MS(+1.42%), 아마존(+0.82%), 애플(+1.12%) 등 대형 기술주는 실적 개선 기대감에 기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했다. JP모건(+0.84%), 웰스파고(+1.59%), 골드만삭스(+1.12%) 등 금융주도 실적 개선 기대에 힘입어 상승 했다. 한편, 장 초반 자동차 관세 우려로 하락 출발 했던 GM(+0.25%), 포드(+0.27%)는 장 후반 트럼프 대통령과의 멕시코와의 무역협상 관련 발언 여파로 상승 했다. 무역분쟁 이슈에 민감한 보잉(+0.17%), 캐터필라(+0.46%) 등도 반등에 성공 했다.

엑손모빌(-1.17%), 셰브론(-1.72%), 코노코필립스(-1.48%) 등은 트럼프의 원유 생산 증가 압박 소식과 무역분쟁 여파로 하락 했다. GE(-1.76%)는 JP모건이 '지나치게 과대 평가되었다'라고 주장하자 하락 했다. 테슬라(-2.30%)는 모델3 5000대 생산 목표 달성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힘입어 상승하기도 했으나 무역분쟁 우려감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1.90%	대형 가치주 ETF	-0.09%
에너지섹터 ETF	-2.74%	중형 가치주 ETF	-0.09%
소매업체 ETF	-0.19%	소형 가치주 ETF	+0.60%
금융섹터 ETF	+0.49%	배당주 ETF	-0.05%
기술섹터 ETF	+0.89%	변동성 ETF	+0.22%
소셜 미디어업체 ETF	+0.59%	대형 성장주 ETF	+0.37%
인터넷업체 ETF	+1.44%	중형 성장주 ETF	+0.41%
리츠업체 ETF	-0.58%	소형 성장주 ETF	+0.97%
주택건설업체 ETF	-0.08%	신흥국 고배당 ETF	-0.79%
바이오섹터 ETF	+0.79%	신흥국 저변동성 ETF	-1.16%
헬스케어 ETF	+0.31%	하이일드 ETF	-0.01%
곡물 ETF	-2.05%	물가연동채 ETF	+0.04%
반도체 ETF	+0.04%	Long/short ETF	-0.1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52.86	-1.55%	+1.70%	-0.60%
소재	361.98	-0.46%	+0.20%	-2.41%
산업재	603.27	+0.19%	+0.09%	-4.22%
경기소비재	871.65	+0.16%	+0.48%	+1.81%
필수소비재	526.29	-0.53%	-1.21%	+2.78%
헬스케어	969.31	+0.37%	-0.53%	+0.31%
금융	444.07	+0.66%	-0.25%	-2.73%
IT	1,230.67	+0.99%	+1.08%	-2.13%
통신	148.46	+0.23%	+1.49%	+2.33%
유틸리티	265.39	+0.79%	+1.39%	+5.78%
부동산	200.90	-0.50%	+0.74%	+1.9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저가 매수 기대

MSCI 한국 지수는 2.19% MSCI 신흥 지수도 0.99%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 순매수(+1,881계약)에 힘입어 2.10pt 상승한 295.0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18.35 원으로 이를 감안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미-중 무역분쟁 이슈가 부각된 가운데 미국의 WTO 탈퇴 가능성이 제기되자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2% 넘게 하락했다. 특히 일부 남북 경협주 및 정유 화학업종이 하락을 주도했다. 그러나 미 증시가 무역분쟁 이슈가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기술주가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마감한 점은 한국 증시에 우호적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WTO 탈퇴할 생각이 없다” 라고 주장한 점, “멕시코 대통령 당선자와 국경문제 및 무역 협정 관련 협상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는 등 시장의 우려감이 완화된 점 또한 우호적이다.

특히 미 증시가 무역분쟁 보다는 어닝 시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9일(금)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은 S&P500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0%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IT가 전년 대비 24.6% 증가하는 등 실적 시즌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된다. 여기에 미국 ISM 제조업지수가 전월(58.7)보다 개선된 60.2로 발표되는 등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 한국의 수출 증가 기대감을 높였다. 지난 1일(일) 발표된 한국의 6월 수출이 전년 대비 0.1% 둔화 되었으나, 조업일수를 감안하면 6.9% 증가했다. 특히 선박을 제외하면 일 평균 수출이 21.7% 증가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을 높일 수 있어 주목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무역분쟁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으나, 어닝시즌에 초점을 맞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업종과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제조업지표 개선

미국 6월 ISM 제조업지수는 전월(58.7)과 예상치(58.1)를 상회한 60.2로 발표되었다. 경기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부항목을 보면 생산지수(61.5→62.3)와 재고지수(50.2→50.8)은 상승했으나, 신규수주(63.7→63.5)와 고용지수(56.3→56.0)은 하락 했다.

미국의 5월 건설지출은 예상치(+0.7%)를 하회한 전월 대비 0.4% 증가 했다. 한편, 전월 발표 수치도 하향 조정(mom 1.8%→0.9%)된 점은 부담이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하락폭 축소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사우디아라비아에 일평균 200 만 배럴 증산을 요구한 여파로 하락 했다. 다만, 아시아시장에서는 1.5% 내외 하락 했으나, 미 증시에서는 낙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미국 국무부가 이란의 원유 수입을 제로로 줄일 것이라고 발표한 데 힘입은 결과로 추정한다.

달러지수는 제조업지표가 크게 개선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또한 유로화가 독일 정치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약세를 보인 점도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유로화는 독일 정부가 총선 이후 기사-기민-사민당의 대 연정이 난민 정책을 둘러싸고 일부 장관이 사임을 하는 등 붕괴 우려가 부각 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엔화는 장 초반 무역분쟁 우려감 속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WTO 탈퇴는 없다” 라고 주장하자 달러 대비 약세로 전환했다. 멕시코 폐쇄, 터키 리라, 남아공 란드화 등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0.5~1.0%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 했다. 장 초반 무역분쟁 이슈가 부각되며 하락세로 출발한 국채금리는 미국 제조업지표 개선과 장 후반 미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자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는 무역분쟁과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여타 비철금속 또한 동반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보합을 보였고 철근은 0.61%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3.94	-0.28	+8.61	Dollar Index	94.890	+0.44	+0.64
브렌트유	77.30	-2.44	+3.69	EUR/USD	1.1643	-0.35	-0.52
금	1,241.70	-1.02	-2.14	USD/JPY	110.83	+0.06	+0.97
은	15.835	-2.24	-3.49	GBP/USD	1.3144	-0.48	-1.03
알루미늄	2,098.00	-1.64	-2.65	USD/CHF	0.9933	+0.27	+0.61
전기동	6,523.00	-1.55	-3.43	AUD/USD	0.7338	-0.90	-1.03
아연	2,822.00	-1.12	-1.26	USD/CAD	1.3190	+0.43	-0.80
옥수수	359.00	-3.30	-3.36	USD/BRL	3.9086	+0.82	+3.56
밀	480.25	-4.19	-2.09	USD/CNH	6.6843	+0.73	+2.18
대두	869.50	-1.19	-2.90	USD/KRW	1120.00	+0.49	+0.25
커피	111.65	-3.00	-4.74	USD/KRW NDF1M	1118.35	+0.38	+0.35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869	+0.92	-1.10	스페인	1.291	-2.70	-5.50
한국	2.530	-2.50	-7.00	포르투갈	1.756	-2.00	-7.00
일본	0.025	-1.10	-1.00	그리스	3.947	+1.70	-15.10
독일	0.304	+0.20	-2.30	이탈리아	2.647	-2.70	-17.20